

[KWDI 기획보도자료]

※ 이 자료는 2012년 7월 6일(금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에 있으니 사용시
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제 17회 여성주간 기념 기획보도자료

OECD 통계로 보는 여성 고령자의 삶

2012. 7. 6

작성자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건표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연구원

기획 및 홍보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·평가팀 황애리



한국여성정책연구원
Korean Women's Development Institute

OECD 통계로 보는 여성 고령자의 삶

- 목 차 -

1. 고령자 경제활동	1
2. 고령자 기대여명	12
3. 노령화지수	16
4. 65세 이상 인구 소득 빈곤율	17
5.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	19
6. 고령자 비만	22
7. 고령자 자살률	25
<부록>	2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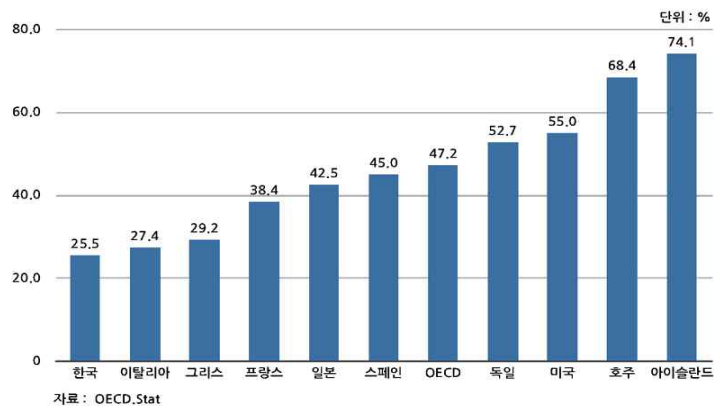
OECD 통계로 보는 여성 고령자의 삶

-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음. 평균 수명(출생시 기대여명 : 여성 83.8년/남성 76.8년, OECD, 2011)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라는 사실은 이 변화를 더욱 가속화함.
- 이 통계리포트는 국제통계를 통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고령자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.
- 특히 상대적 취약계층으로 평가되는 여성 고령자의 증가로 야기되는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여성 고령자의 건강한 삶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세대간 균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함.

1 고령자 경제활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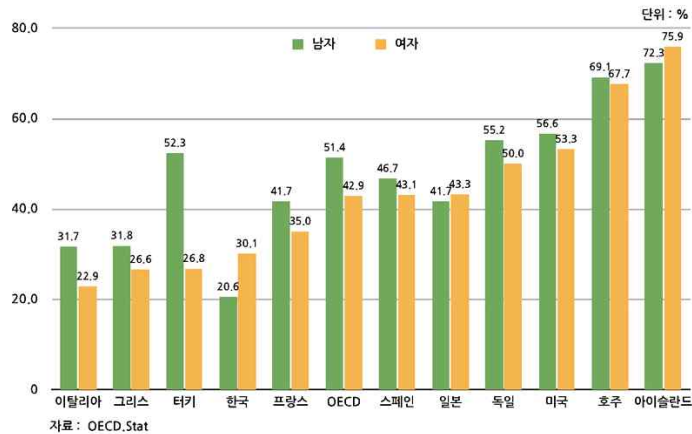
한국 경제활동 참가율 고령층 > 청년층. OECD 국가 중 유일

<그림 1> OECD 주요국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, 2011



- OECD 주요 국가 청년층(15-24세)의 경제활동 참가율
 - 한국은 헝가리,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최하위 국가
 -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25.5%로 OECD 국가 평균인 47.2%에 비해 21.7%p 낮음.
 - OECD 주요 국가 중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스페인, 일본, 프랑스, 그리스 등이었고 높은 국가는 독일, 미국, 호주 등임.
 - 아이슬란드는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74.1%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남.
 - 한국의 청년층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국가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인 51.4%, 42.9%에 비해 모두 낮은 참가율을 나타냄.
 - 청년층 남성은 20.6%로 OECD 주요 35개국 중 가장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임.
 - 청년층 여성은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OECD 청년층 여성 평균인 42.9%보다 12.8%p 낮게 나타남.
 - 한국의 청년층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여성이 9.5%p 높게 나타나 남성 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국가임.
 - 이는 한국 남성의 경우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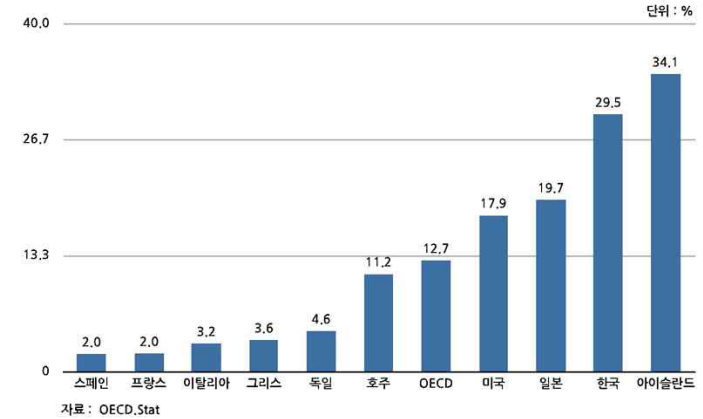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OECD 주요국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(성별), 2011



□ OECD 주요 국가 중 고령층(65세이상)의 경제활동 참가율

- 한국은 OECD 평균인 12.7%보다 높은 29.5%로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과 4.0%p 높은 수준
- OECD 평균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, 일본 등
 -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(34.1%)이 가장 높은 국가
- OECD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호주, 독일, 그리스, 이탈리아 등
 - 가장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과 프랑스(2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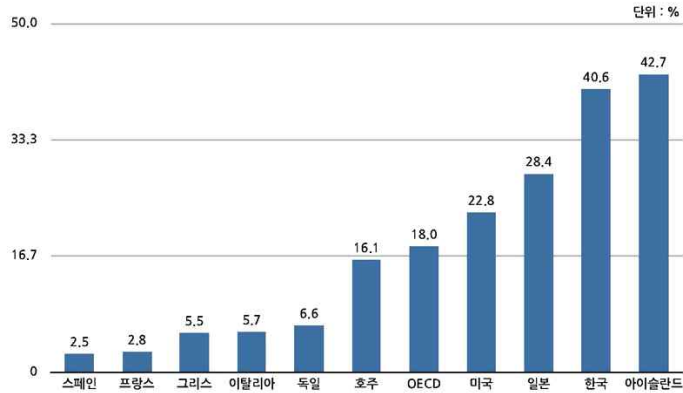
<그림 3> OECD 주요국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, 201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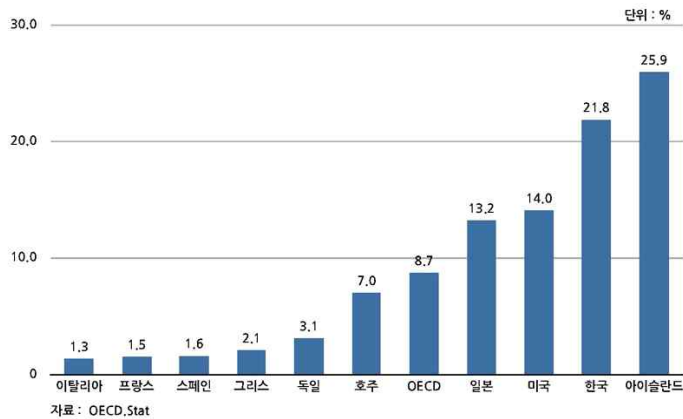
○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이 여성보다 18.8%p 높아

- 한국의 고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0.6%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8.0%에 비해 22.6%p 높음.
-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1.8%로 OECD 국가 평균인 8.7%에 비해 13.1%p 높아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.
- 한국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18.8%p로 OECD 34개 국가 중 3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
- 고령층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큰 국가들로는 칠레(23.3%p), 멕시코(27.7%p) 등
- 격차가 작은 국가는 에스토니아(1.5%p), 프랑스(1.3%p), 스웨덴 (1.0%p) 등임.

<그림 4> OECD 주요국 고령층 남성 경제활동참가율, 201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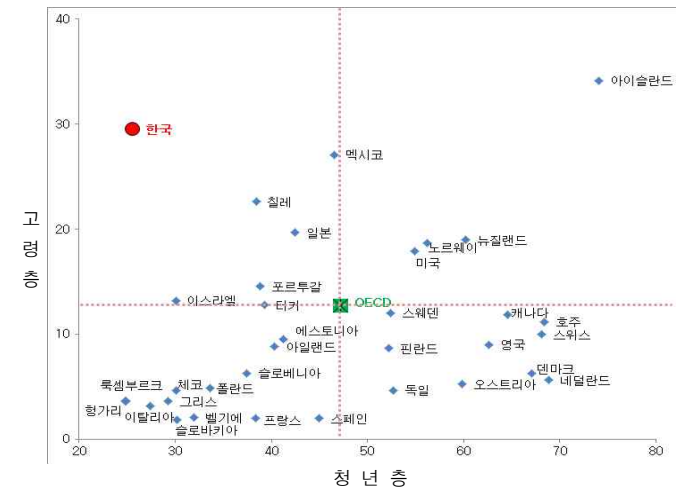
<그림 5> OECD 주요국 고령층 여성 경제활동참가율, 2011



□ OECD 국가의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유형

1) OECD 국가의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(전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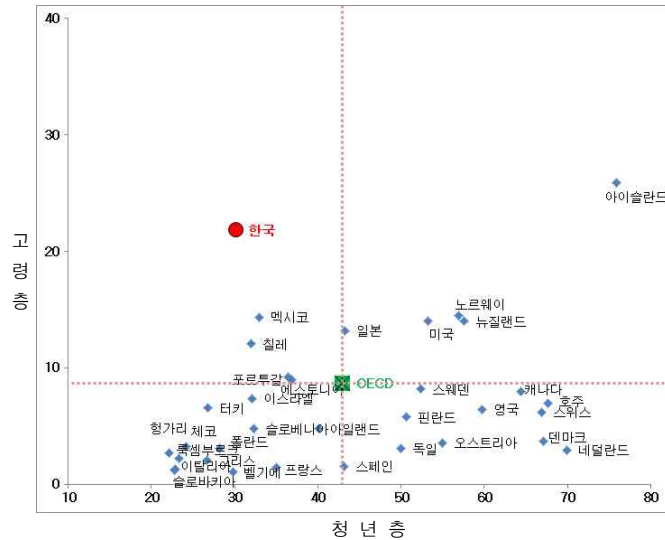
<그림 6> OECD 국가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산점도, 2011



- OECD 국가 평균은 청년층 47.2%, 고령층 12.7%로 청년층이 34.5%p 높음.
- 전체적인 국가군의 배치를 살펴보면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고령층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마찬가지로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.
- 한국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가 크지 않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남.
-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낮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높은 국가임.

2) OECD 국가의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(여성)

<그림 7> OECD 국가 여성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산점도,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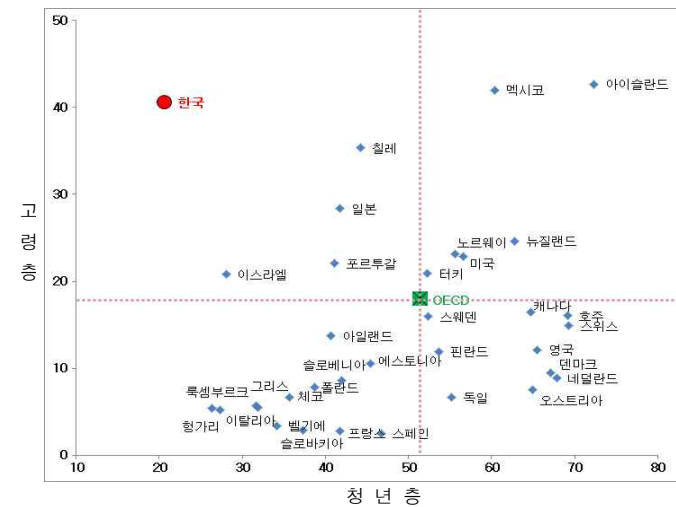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OECD.Stat

- OECD 국가 여성의 평균은 청년층 43.0%, 고령층 8.7%로 청년층이 41.3%p 높음.
- 전체적인 국가군의 배치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이 여성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10% 미만이며 이들 국가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.
-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성의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로 나타남.

3) OECD 국가의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(남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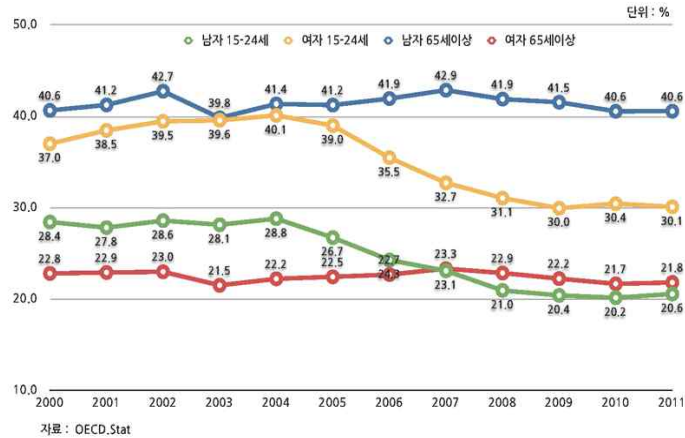
<그림 8> OECD 국가 남성 청년층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산점도, 201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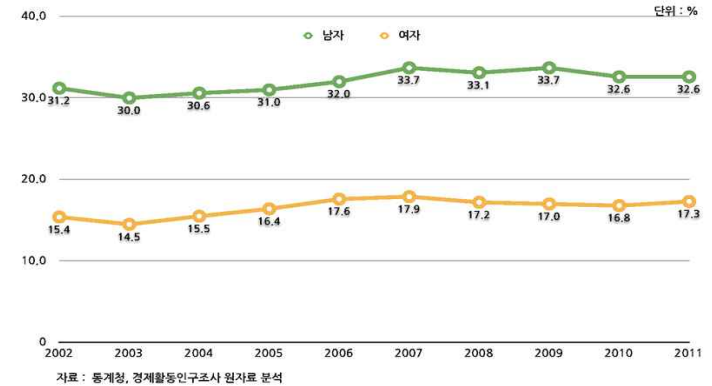
자료 : OECD.Stat

- OECD 국가 남성의 평균은 청년층 47.2%, 고령층 12.7%로 청년층이 32.5%p 높음.
- 전체적인 국가군의 배치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이 OECD 남성의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평균인 12.7% 미만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례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음.
-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청년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고 고령층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우 높은 국가임.

<그림 9> 연도별 청년층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(성별)



<그림 10> 7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



□ 청년층과 고령층의 연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

- 청년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00년부터 살펴보면 청년층과 고령층 내의 성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 경향이 다름.
 - 고령층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여성이 낮은 반면 청년층은 여성이 높고 남성이 낮은 반대의 경향을 보임.
 -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.
 - 남성 청년층의 경우 2000년 28.4%였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1년 20.6%로 하락했고 여성은 2000년 37.0%에서 2011년 30.1%로 하락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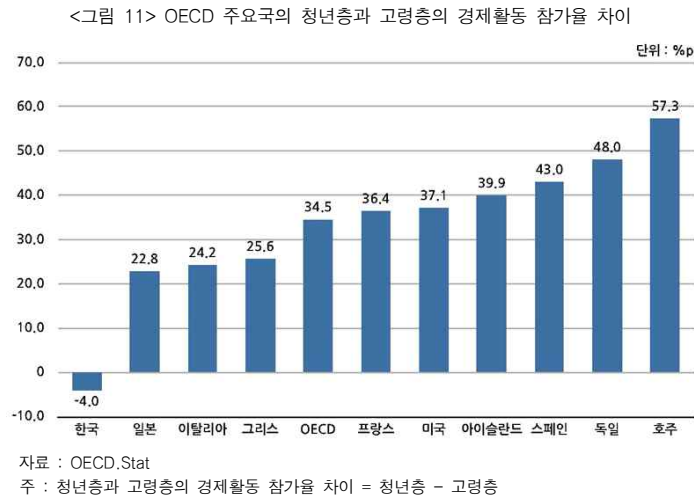
□ 성별에 따른 7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

- 7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1년 70세 이상 남성 10명 중 3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여성 10명 중 1~2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.
 - 7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 31.2%에서 2003년 30.0%로 하락한 후 2007년 33.7%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증감을 반복해 2011년 32.6%를 기록
 - 70세 이상 여성은 남성의 절반 정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과 비슷한 증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70세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7.3%인 것으로 나타남.

□ OECD 주요국 중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청년층에 비해 높은 유일한 국가로 나타남.

-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청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57.3%p 높은 국가임.

- 한국은 비교 국가 중 유일하게 청년층이 고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4.0%p 낮은 국가임.



□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령자 빈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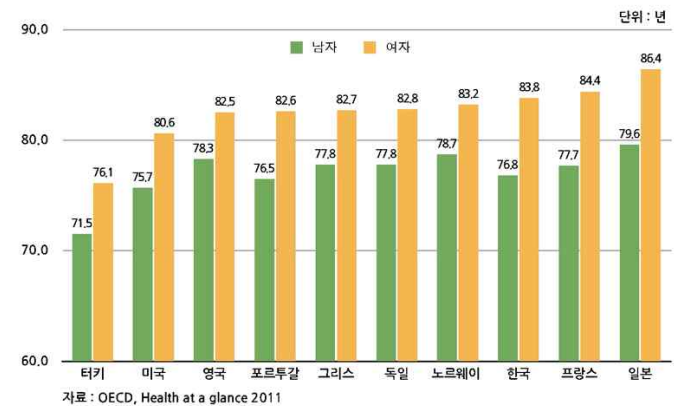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 높은 대학 진학률, 국방의 의무로 인한 특수성,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임.
 - 청년층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청년층이 부모 세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빈곤상태의 고령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
-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촉발하는 시점에서 한정된 일자리 자원의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

2 기대여명

한국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 32개국 중 6번째, 남성보다 7년 더 산다

- 국제협력개발기구(OECD) 주요 국가의 출생시 기대여명에서 한국은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긴 국가로 분석
- 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11(Health at a glance 2011)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가장 긴 국가는 세계최장수국가 일본(86.4년)이었으며 프랑스(84.4년), 한국(83.8년)순으로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길었음.
- 한국은 비교 가능한 국가 32개국 중 6번째로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긴 국가였음.
- 반면,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은 국가는 터키(76.1년)로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가장 긴 일본 여성에 비해 10.3년 짧았음.

<그림 12> OECD 주요 국가의 출생시 기대여명(평균수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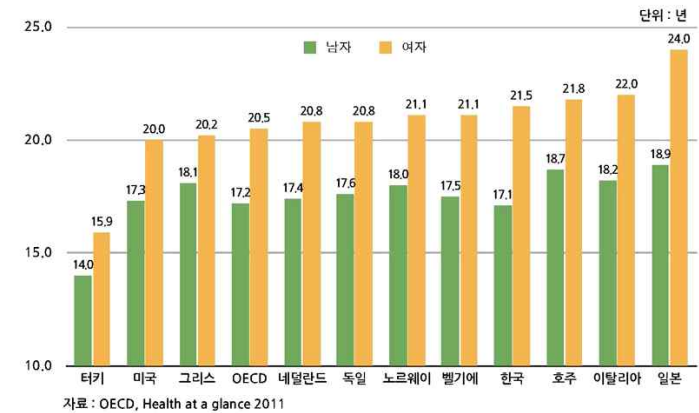


- 주요국가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을 좀 더 살펴보면 노르웨이가 83.2년, 독일이 82.8년, 그리스 82.7년, 포르투갈 82.6년, 영국 82.5년, 미국 80.6년 순으로 나타남.
- 남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(79.7년)였으며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(79.7년), 일본(79.6년)순임.
- 남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짧은 국가들로는 터키(71.5년), 슬로바키아(71.3년), 헝가리(70.0년)임.
- 가장 짧은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69.8년이었고 한국 남성(76.8년)은 32개국 중 20번째로 비교국가 중 상대적으로 남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짧은 국가군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65세 기대여명 한국 남성 17.1년, 여성 21.5년

- 한국 여성의 65세 기대여명은 21.5년으로 일본(24.0년), 스위스(22.2년), 이탈리아(22.0년) 등에 이어 37개국 중 7번째로 기대여명이 긴 국가.
- OECD 여성의 65세 평균 기대여명은 20.5년으로 한국 여성의 65세 기대여명 보다 짧음.
- 반면, 남성은 17.1년으로 OECD 평균인 17.2년에 비해 0.1년 짧은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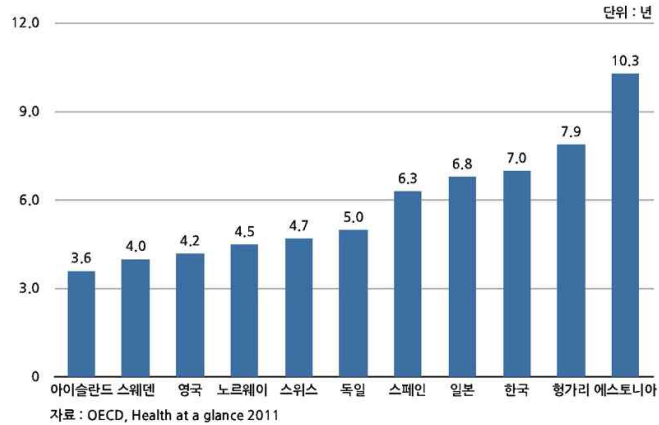
<그림 13>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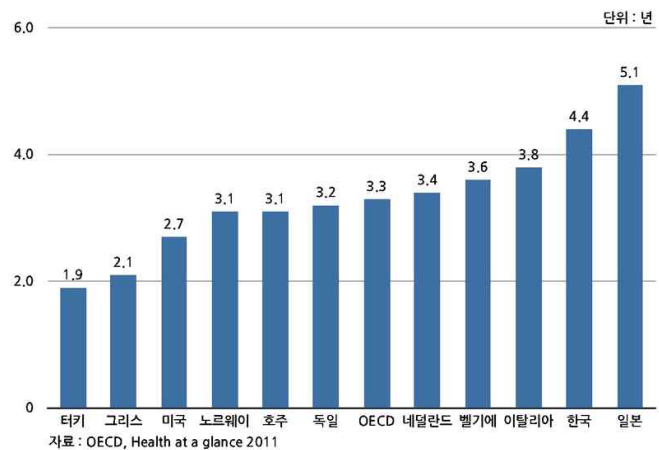
□ 여성과 남성의 출생시 기대여명 격차

- 에스토니아의 경우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10.3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나 32개국 중 가장 격차가 큼.
- 한국은 7.0년으로 32개국 중 5번째로 출생시 기대여명의 성별격차가 큰 국가.
- 주요국가의 출생시 기대여명 성별격차는 일본(6.8년), 스페인(6.3년), 독일(5.0년), 노르웨이(4.5년), 스웨덴(4.0년)순이었고 아이슬란드는 3.6년으로 출생시 기대여명의 성별격차가 32개국 중 가장 작은 국가로 나타남.
- 한국은 OECD 주요 32개국 중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6번째로 긴 국가인 반면 남성은 13번째로 짧은 국가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5번째로 큰 국가임.

<그림 14> OECD 주요 국가의 출생시 기대여명 성별격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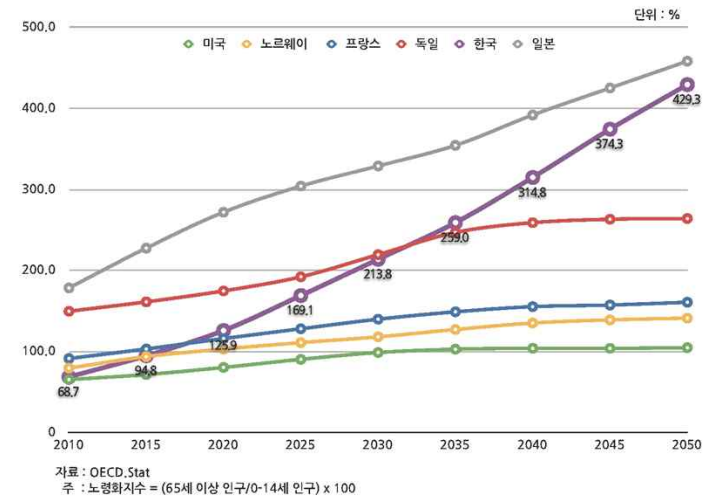
<그림 15>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성별격차



3 노령화지수

한국의 노령화지수 증가 속도, OECD 중 최고

<그림 16> OECD 주요 국가 노령화지수, 2010-2050



□ OECD 통계에 의한 한국의 노령화지수

-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.7%로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(178.5%), 독일(149.7%), 이탈리아(146.8%)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.
- 그러나 추계인구를 통해 노령화 지수를 전망한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모습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
-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.7%에서 2020년 125.9%로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가 0-14세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 213.8%, 2040년 314.8%로 급속히 증가해 2050년에는 429.3%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0년에 비해 약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.

- 이러한 전망은 2010년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인 일본의 전망치인 458.2%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.
- 한국의 노령화지수 증가 속도가 OCE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은 <그림 16>의 변화추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.

□ OECD 주요 국가와의 비교

- 미국, 노르웨이, 프랑스는 변화 추이가 완만한 증가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과 일본, 독일은 그 증가폭이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 큼
- 특히 한국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
4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

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, OECD 국가 중 최고 (남성 41.8%, 여성 47.2%, OECD, 20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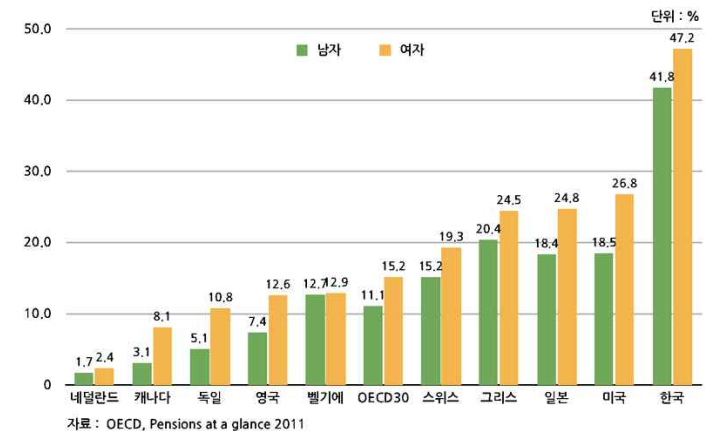
□ OECD 주요국과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 비교

- 소득 빈곤율 또는 상대적 빈곤율이란 각 국의 상황을 고려한 중위 소득 50%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의미
-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소득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남.
 - 한국 65세 이상 남성의 소득 빈곤율은 41.8%, 여성 47.2%
 - OECD 주요 30개국 65세 이상 남성의 소득 빈곤율 평균은 11.1%, 여성은 15.2%
- OECD 주요 30개국의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65세 이상 남성의 소득 빈곤율은 OECD 주요 국가보다 30.7%p, 여성은 32.0%p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□ OECD 주요 국가의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소득 빈곤율

- 네덜란드의 경우 65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소득 빈곤율이 각각 1.7%, 2.4%로 가장 낮은 국가.
- OECD 주요 30개국 중 소득 빈곤율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캐나다, 독일, 영국, 벨기에 등
- OECE 주요 30개국 중 소득 빈곤율이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, 일본, 그리스, 스위스 등이며 한국이 가장 높음.

<그림 17> OECD 주요 국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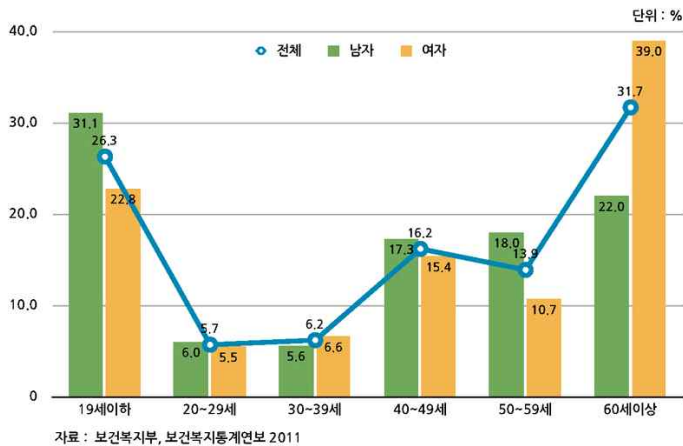
□ 65세 이상 인구의 높은 소득 빈곤율 원인

- 노후준비의 부재, 고령자 일자리 부족, 사회적 안전망 미비 등이 원인
- 특히, 한국의 경우 OECD 비교국가에 비해 다소 늦게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고령 인구가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와 연금의 낮은 수급액으로 인해 빈곤 해소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으로 분석됨.

5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

80세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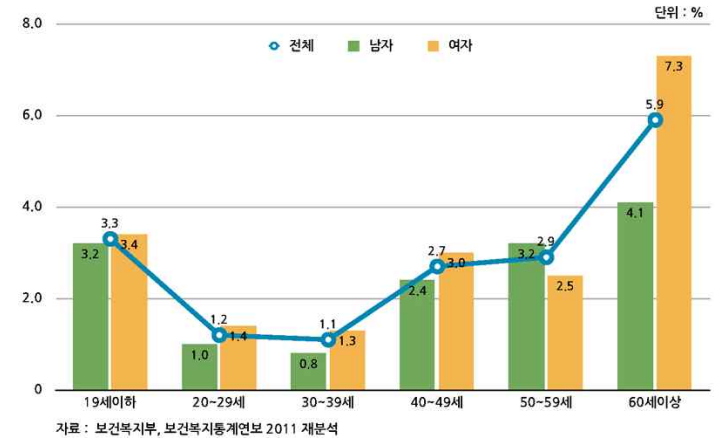
<그림 18>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별 비율(성별), 2010



□ 연령대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

-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연령대 분포를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로 살펴 보면 경제활동에 진입하지 않은 19세 이하의 연령대와 경제활동에서 퇴장한 연령대인 60세 이상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.
- 전체 수급자 중 19세 이하의 비율은 26.3%, 60세 이상 비율은 31.7%
- 20대에 5.7%로 낮아진 수급자 비율은 30대에서 6.2%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한 후 40대에서 16.2%로 증가. 50대에서 13.9%로 낮아진 수급자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31.7%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특징.
-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연령대는 19세 이하,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각각 31.1%, 39.0%로 나타남.

<그림 19> 전체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연령별 비율(성별), 20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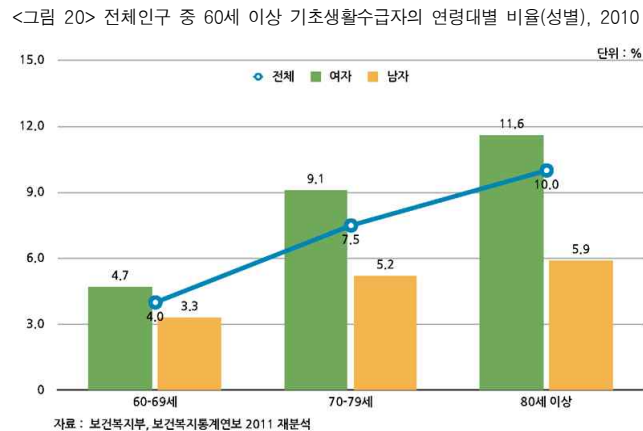
□ 전체 인구 중 각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

- 전체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3.5%미만으로 나타남.
 - 19세 이하 수급자의 절대적인 수는 다른 연령대의 수급자에 비해 많지만 수급자 비율은 3.3%에 불과(<그림 19> 참조).
- 60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.9%로 19세 이하의 경우보다 2.6%p 높음.
 - 이는 60세 이상 인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구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.
-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7.3%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에 비해 60세 이상 남성은 4.1%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.

- 이는 60세 이상 여성의 빈곤문제가 다른 연령대와 성별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.

□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비율

-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짐 (<그림 20> 참고).
- 60대 남녀 수급자 비율 차이는 1.4%p, 70대는 3.9%p, 80세 이상에는 5.7%p로 남녀 수급자 비율 격차가 점차 벌어짐.
- 특히 60대 여성의 경우 4.7%에 불과하던 수급자 비율이 70대에 들어서는 9.1%로, 80대 이상의 경우에는 11.6%로 증가함.
- 이는 8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을 의미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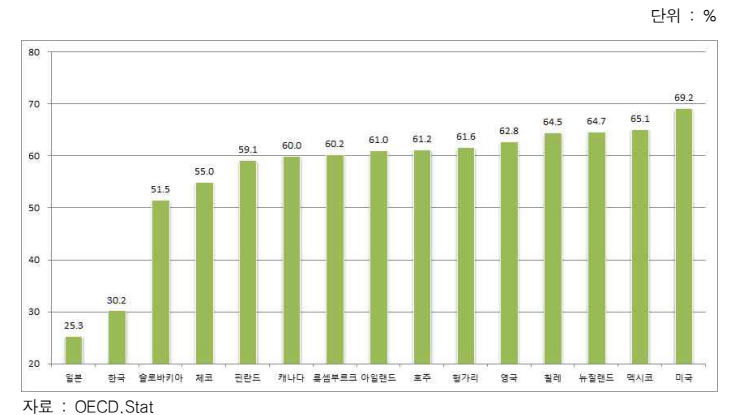
6 비만

OECD 국가 중 비만을 낮지만 50세 이상 여성 비만을 높아

□ 한국과 주요 OECD 국가의 비만 인구 비율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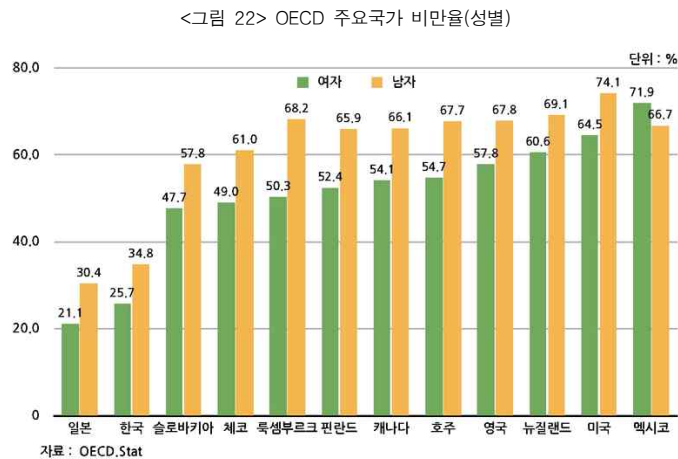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 일본과 함께 OECD 주요 국가 중 비만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.
 - 한국의 비만율은 30.2%로 가장 비만율이 낮은 일본의 25.3%보다 4.9%p 높지만 OECD 주요국의 비만율이 대부분 50%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비만율이 낮은 수준
-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(69.2%)이었으며 멕시코(65.1%), 뉴질랜드(64.7%), 칠레(64.5%), 영국(62.8%)순

<그림 21> OECD 주요국가 비만율



- 비만율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, 한국, 체코, 슬로바키아, 룩셈부르크, 핀란드, 캐나다 등이고 여성의 비만율이 남성보다 높은 국가는 멕시코임.

- 즉, 비만율과 관련한 OECD 주요 국가의 특징은 남성 비만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
- 한국의 여성 비만율은 25.7%로 일본 여성(21.1%)보다는 높지만 비교 가능한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
- 멕시코의 경우 남성 비만율이 66.7%인데 반해 여성 비만율이 71.9%로 여성 비만율이 더 높은 국가임.
- 남성 비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(74.1%)이었으며 뉴질랜드(69.1%), 호주(67.7%), 멕시코(66.7%)순으로 남성 비만율이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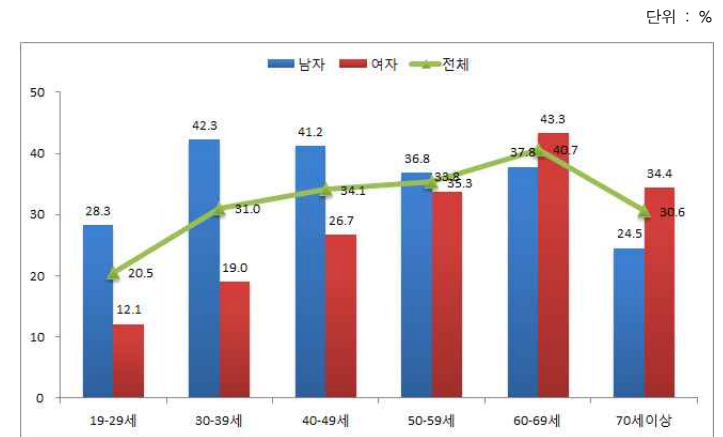


□ 한국의 연령별 비만율

- 한국의 비만율 추이를 살펴보면 19-29세 20.5%에서 60대 40.7%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70대 이상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.
 - 남성은 19-29세 28.3%에서 30대 42.3%로 증가한 후, 40대 41.2%, 50대 36.8%로 꾸준히 감소한 후 60대 37.8%로 소폭 증가 후 70세 이상 24.5%로 급속하게 비만율이 감소하는 추세

- 여성은 19-29세 12.1%에서 30대 19.0%, 40대 26.7%, 50대 35.3%, 60대 43.3%로 꾸준히 증가한 후 70세 이상에서 34.4%로 조금 감소하기는 하지만 60대까지 증가한 비만율이 유지 되는 경향을 보임.
- 특히, 50대까지는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에 비해 높지만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여성의 비만율이 남성에 비해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보임.

<그림 23> 연령대별 비만율(성별), 20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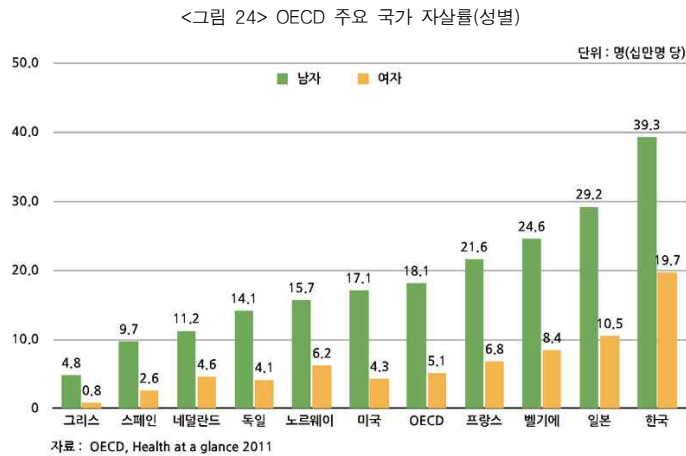
자료 : 보건복지부 · 질병관리본부, 2010 국민건강통계

주 : 비만율 = 체질량지수 기준으로 저체중(18.5 미만), 정상(18.5 이상 25 미만), 비만(25 이상)인 비율

- OECD 국가 간의 비교에서는 한국의 비만율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별, 연령별로 살펴본 한국의 비만율은 50대 이상 여성의 비만율이 급증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.
-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

7 자살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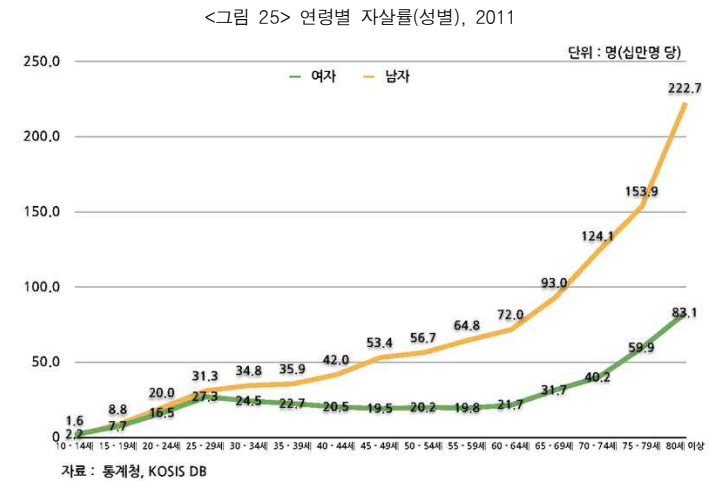
한국,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. 남성 고령자 자살률 높아



□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십만 명 당 자살률

- 한국의 자살률은 남성 39.3명, 여성 19.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임.
 -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은 남성 18.1명, 여성 5.1명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자살률을 보임.
-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 자살률 평균 보다 높은 주요 국가로는 프랑스, 벨기에, 일본 등이 있으며 모두 낮은 국가는 미국, 독일, 네덜란드, 스페인, 그리스 등
- 한국 남성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.2배, 여성은 3.8배 높은 자살률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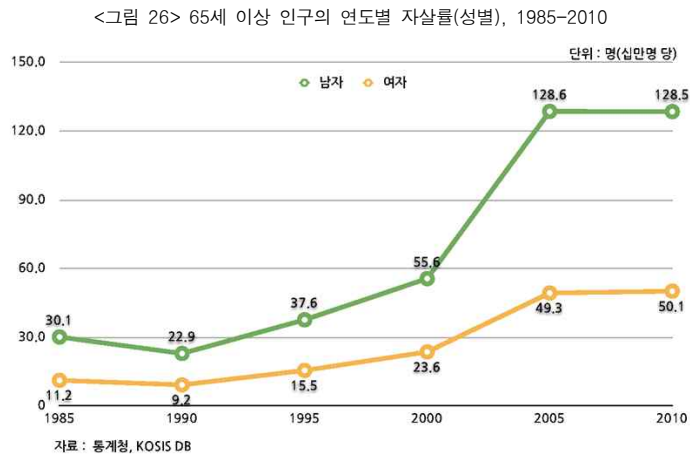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OECD 국가들 중 자살 문제가 가장 심각함을 의미함.



□ 연령대에 따른 자살률 변화

-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.
 - 특히 60세 이상부터 급속하게 자살률이 증가(60-64세 72.0명, 65-69세 93.0명, 80세 이상 222.7명).
- 여성은 25-29세부터 60-64세까지 비슷한 자살률을 보이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(65-69세 31.7명, 70-74세 40.2명, 80세 이상 83.1명으로 증가).
- 남녀 모두 60대에 접어들어 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. 이러한 현상은 고령 남성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남.

- 자살이 한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령 고령자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고령자의 안정적인 삶과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.



- 한국 자살률의 변화양상(65세 이상)
-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5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0년까지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(<그림 26> 참조).
 - 남성의 경우 1985년 30.1명에서 1990년 22.9명으로 감소하고 1995년 37.6명, 2000년 55.6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후 2005년 128.6명으로 급속히 증가한 후 2010년 128.5명으로 유지
 - 여성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05년 49.3명으로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후 2010년 50.1명으로 유지

<부록> OECD 회원국 청년층/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(2011)

